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04

Vol. 503



HEALING

힐링의 에너지로 가득한 삶!
잠깐의 여유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되새겨보자.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Contents

04 포토 이슈

서울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 간담회 참석
제12차 교정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Colorful Think

06 Theme Column

4월의 컬러, GREEN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놓일 때

08 Theme People

뻔해도 꼭,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제영재 PD, 김민종 PD, 방송인 유병재, 교사 박민철

12 Theme Talk

뜨거운 열정과 기백이 넘치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16 Theme Advice

언어, 마음이 담기는 그릇

초록의 기운이 마음까지 설렘으로
가득 채우는 4월입니다. 따사로운 4월,
월간 〈교정〉이 당신의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4월호 (통권 503호) 62권 4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Cheerful Life

18 교정은 행복을 살고

음악으로 하나 된 우리, 음악으로 얻은 행복
김천소년교도소

24 아빠! 어디가?

삼부자의 볼링 체험
목포교도소 교감 김상을 가족

28 어느 멋진 날

교정 밖에서 만난 특별한 문화생활 동호회
대전교도소 교우 홍민호 외 6명

32 패밀리 프로젝트

향기로 가득한 봄 나들이

36 습관의 건강학

먼지 많은 날들, 작게나마 숨 돌리기

38 히어로 코믹스

딴지맨의 등장

42 교정 인사이트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감옥에서의 철학

44 BOOK MARK

숲과 나무, 자연의 에너지를 전하는 책들



Correction Story

46 교정 글마당

통영구치소 교위 조성문

48 교정 리포트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는 형사사법
심포지엄 참석 및 관련 교정기관 자료수집

54 지상강좌

교정학

56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4 교정 인스타그램

힐링을 담은 사진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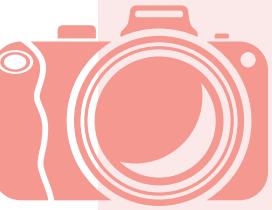


Photo Issue

4월, 대지가 푸른 기운으로 만연한 봄의 한복판에 다다랐다. 교정본부는 싱그러운 초록처럼 즐거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눈여겨 볼만한 이달의 교정 현장을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 사진 김도형



서울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및 교정위원 간담회 참석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2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 서울구치소 구내·외를 순시하며 수용관리실태 및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스칼라티움(평촌)에서 교정위원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용자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김영자·김이순·윤길섭·변상해 위원 등 4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



제12차 교정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지난 3월 14일 제12차 교정정책자문단 회의가 서울동부구치소 종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교정정책단장 등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1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교정본부 업무보고와 함께 수용자 의료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교정정책자문단은 법무부의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교정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우리의 마음에 _____ 평화가 놓일 때



우리는 자주 상처를 입고 슬픔을 겪으며 살아간다. 주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자존심을 다치기도 하며 사랑하던 이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황무지에 들어선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바쁜 일상으로 상처의 고통조차 외면하고 방치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만큼의 평화와 안식이 깃들어 있을까.

우리를 치유해주는 숲의 풍광

인간이 태초부터 머물렀을 숲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선물해주는 곳이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넓은 음폭의 백색음(White sound)의 특성을 띠는데, 기분을 편안하게 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또 어떤가. 이 성분들이 우리에게쾌적감을 준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많은 근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숲속의 녹색 나무들이 주는 풍광과 잔잔하게 흘러가는 계곡물 소리에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낀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과 부연 면지에 익숙한 현대인들, 그리고 누군가의 날선 언어와 행위들로 마음을 다치는 요즘 사람들에게 숲은, 그래서 최적의 힐링지다. 일상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마음속에 평화를 놓이게 하는 공간이다. 숲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가만히 눈을 감고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차분해지고 숨통이 트이는 듯도 하다. 숲이라는 자연, 녹색으로 물들인 모습은 일상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우리를 치유해주는 것이다.

어느 감정으로도 치닫지 않는 GREEN

식물이 녹색을 띠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엽록소다. 엽록소는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며 우리가 지구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공기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녹색은 자연과 식물을 상징한다. 숲을 울창하게 물들이는 나뭇잎과 풀잎들, 차츰차츰 익어가는 풋과일의 껍질이 녹색을 띈다. 초목이 쑥트는 봄의 풍경도 다르지 않다.

아무 것도 장식되지 않은 식물은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무른다. 살아 있으나 바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므로 평화롭다. 녹색도 마찬가지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상징하는 빨강과 파랑의 사이에 놓여 특정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나타내지 않는 이 색은, 자연과 가장 닮아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편안하고 온화하게 만들어 준다. 어쩌면 녹색은 일상의 피곤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위로해주기에 가장 충분한 색일지 모르겠다.

깨알 지식

'about GREEN'

의사가 강한 조명 아래서 오랫동안 수술하며 환자의 붉은 피를 보고 있다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망막의 원추세포가 피로해진다. 이 상황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동료의사나 간호사를 바라보게 되면 빨간색과 보색인 초록색의 잔상이 남게 된다. 이 잔상은 의사의 시야를 혼동 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들이 이 잔상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술실에서는 초록색 가운을 입는 것이다.

뻔해도 꼭, ‘착하게 살자’

지난해 일어난 ‘대통령 탄핵’과 최근의 ‘미투(me too)운동’,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아울러 죄를 지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종영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는 이에 대한 무겁지 않은 설명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 이후의 사법처리 과정과 실제 교도소 생활을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예능의 형식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 이를 기획하고 연출한 제영재·김민종 PD와 가상의 범죄를 짓고 감방생활을 적나라하게 체험한 방송인 유병재 씨, 그리고 수용자로 위장해 참여한 박민철 교사를 한 자리에 만나 ‘착하게 살자’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되새겨보았다.



새삼 ‘착하게 살자’고 말하는 이유

‘우리는 누구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지난 1월 19일에 첫 방송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는 이 같은 자막을 띠우며 시작했다. 금기의 구역인 교도소에 대한 단순 체험 예능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찰 조사, 구속, 구치소, 재판, 교도소 등 일련의 사법 시스템 작동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방송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범죄 행위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교도소에 수감되며,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낱낱이 담아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왜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시청자들 스스로 납득하게끔 했다. 물론 이런 기획이 공감을 얻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법 처리 과정과 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

어요. 그즈음 교도소라는 낯선 소재에 사회적 현상을 결합해 사법 처리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죠.”

전작인 ‘진짜사나이’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김민종 PD가 소재의 참신성에 의미를 두었다면, 공동연출을 맡은 제영재 PD는 개인적 경험을 보태 사람들의 인식 전환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기획의도에 염두했다.

“20년쯤 됐지만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경험을 들추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대해 적잖은 오해와 왜곡을 하고 있단 생각이 들더군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픈 바람이 있었죠.”

그렇다고 교도소에 대한 거짓이나 왜곡의 범주에 그곳 환경과 수용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었다. 교도소 생활을 있는 그대로 관찰예능 형식으로 다루면서 그간 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착하게 살자’
PD

김
민
종

교도관
박
민
철

방송인
유
병
재

‘착하게 살자’
PD

제
영
재



공익적 메시지와 우려 사이

제작발표회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을 다루면서 일반인들이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상식을 제공하겠다’던 제영재 PD의 출사표는 첫 회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출연자인 연예인들이 각기 가상의 상황에서 범죄를 짓고 사법처리를 받는 과정이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전문 변호사와 오랜 논의 끝에 ‘범인 도피죄’, ‘산림 실화죄’, ‘장물 취득죄’ 등 가상의 사건을 구상해 해당 출연자들이 처벌 받는 과정을 담은 것. 출연진 중 한 명인 방송인 유병재 씨는 그간 참여했던 예능을 통틀어 가장 낯설고 난감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촬영 전엔 난생처음 교도소와 사법체계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호기심이 컸어요. 그런데 머그샷 촬영과 항문검사 등을 적나라하게 경험하면서 새삼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실제로 유병재 씨를 포함한 출연자들은 세트가 아닌 신문지 12장 크기의 4평 남짓한 여주교도소 수용거실에 수감되었다. 일상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박탈당하고 노역을 나가는 등 범죄를 짓고 감옥에 온 수용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으며,

최소한의 난방에 평상시엔 찬물로 씻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온수목욕을 할 수 있는 동절기 규율을 그대로 따랐다. 이들의 수감생활은 목포교도소 김상을 교감과 서울구치소 박민철 교사가 각각 주취폭력전과 9범과 사기전과 2범의 수용자로 위장해 투입되면서 현실감을 더했다.

“까칠한 박사장으로 수용자 생활을 했는데요. 의도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될까’ 싶을 만큼 내적 갈등이 깊었던 때도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웃고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방송되면 자칫 범죄 미화나 희화화 등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었죠.”

박민철 교사의 염려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촬영하면서 제작진이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출연진 개인이 저지른 가상의 범죄 구성부터 교도소 수감생활까지 리얼리티에 개연성 있는 픽션만을 가미하는 신중함을 기했다. 특히 수용자들을 다루는 장면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기조를 유지하여 감정이 스며들어 자칫 미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했다. 덕분에 일찍이 우려를 씻고 ‘착하게 살자’라는 메시지 전달에 충실했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교정공무원들의
존재감 회복 등
값진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습니다.”



양지로 나온 교정공무원들

방송 전부터 이색적인 콘셉트로 주목을 끈 ‘착하게 살자’는 본 촬영에서도 여느 예능 프로그램과 다른 면이 많았다. 일단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여주교도소에서 24시간 촬영하다 보니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인력의 10분의 1 수준인 10여 명의 스태프와 최소한의 장비만 투입할 수 있었다. 모든 동선에 교도관이 동행했으며,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작진 개입에 크고 작은 제약이 따랐다. 또, 촬영 현장에 등장하는 수용자의 경우 방송에 얼굴과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5, 6번의 후반작업 후에도 살피고 또 살펴야 했다.

“언더커버 교도관들의 신분을 끝까지 숨기는 것도 하나의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교도관들에게 원하는 방향을 전달하고 싶어도 좁은 수용거실에 모여 있다 보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중간 중간 연예인 출연자들의 시선을 피해 소통을 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회식 장소에서 커밍아웃하기 전까지 수용자로 완벽하게 위장해 제작진으로서 고마웠죠.”

이처럼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교도관이 수용자의 역할로 프로그램의 감초 역할을 자처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한 영화에서 교도관이 ‘이거 때려치우고 공무원이나 할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교도관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그 만큼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죠. 교도관으로서 씹쓸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이미지 제고가 이루어지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



고요. 댓글과 주변 사람들이 건넨 ‘교도관들 정말 힘들겠다’라는 공감과 위로의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이후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민철 교사의 말처럼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비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이미지와 맞물려 그동안 음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착하게 살자’를 통해 수용자들이 수용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교도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이 많았다. 수용자들이 생활하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실시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나가는 등 원활한 교도소 시스템 뒤에 늘 긴장감을 갖고 일하는 교도관들이 있음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착하게 살자’라는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제영재 · 김민종 PD가 보람을 느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쉬움도 있지만 몸소 체험한 교도소 생활을 통해 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출연자들의 모습과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교정공무원들의 존재감 회복 등 값진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순간의 유흥이나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선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살다 보면 뻔해서 소중함을 간과하는 것들이 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푹신한 침대에 눕고,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는 등 좋아하는 걸 원하는 때 누리는 것. 마지막 방송에서 유병재 씨가 했던 말처럼 이런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는 ‘뻔하지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 꼭, ‘착하게 살자’





뜨거운 열정과 기백이 넘치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에 비해 패기로 가득 찬 젊은 신입 교정공무원들이 많다. 또래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속력을 이어간 이들은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며 함께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물론 근무를 할 때는 눈빛을 반짝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중한다. 일할 땐 확실히 일하고, 쉴 땐 확실히 웃음을 나눌 줄 아는 이들. 화끈한 분위기 속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떠나보자.

활기차며 풍요로운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981년 10월 2일 청송 제3보호감호소란 이름으로 첫발을 뗐다. 이후 사회보호법 폐지, 교도소 분리 등 의 이유로 몇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2010년 8월에 이르러 지금의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명명되었다. 현재는 200여 명의 직원들이 600여 명의 수용자를 선도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의 접근성이 좋지 못한 탓에 많은 교정공무원들이 근무를 꺼리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져 상황이 달라졌단다. 무엇보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제1교도소, 제2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등이 근접해 있는 만큼 업무 공유가 수월하다. 또한 교도소 내에 탁구장, 농구장, 헬스장, 국궁장,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이 마련돼 있어 교도관들이 체력을 키우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경북북부제3교도소만의 또 다른 장점을 묻는 말에 신재원 교도와 전승엽 교도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활기찬 편”이라며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답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점, 다른 교도소에 비해 전통 유지가 잘 되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수용자들과 너무 멀어져서도,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된다.”

낮은 재범률을 위해 힘쓰는 교정맨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다. 인권 및 권익보호를 바탕으로 수용자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새 출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북북부제3교도소 직원들은 수용자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물었다. 교정공무원 교육을 받을 당시를 떠올리던 신재원 교도는 “수용자들과 너무 멀어져서도,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수용자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 이곳에 들어왔든 저희가 관리해야 할 대상임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수용자를 위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마다 종교 활동은 물론 성폭력 균절 프로그램,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수용자들의 사랑을 받는 취·창업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며, 맞춤 면접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출소 후 수용자들이 겪어야 하는 생계와 일자리 문제를 덜고 있다. 출소 후 바로 취직돼 생계가 안정이 된 수용자들은 재범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창업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신재원 교도는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앞으로도 취·창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승엽 교도는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신재원 교도 역시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머물 시간이 2년 정도 남았는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국궁동호회 ‘청교정’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차로 약 5분 정도 이동하자 곧 ‘청교정’ 동호회 회원들이 마중을 나왔다. ‘청교정’은 지난 2014년 창단됐다. 2015년 약 30명 정도로 시작했고 현재는 24명이 소속돼 있다. 청교정의 사두를 맡고 있는 박연봉 교위는 “시골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활에 관심이 많았다”며 “그 당시 소장님께서 국궁 동호회를 만든다는 말에 처음 입문해 사두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활은 정말 어렵지만 스릴도 있고 계속하게 되는 매력이 있단다. 청교정의 또 다른 회원 장명봉 교감 역시

그의 말에 동의했다. “국궁 동호회를 알게 된 덕분에 한번 해볼까 했던 취미가 퇴직 후 계속하고 싶은 일이 됐다”고 전했다.

교도관 직업 특성상 많은 전근이 있음에도 국궁동호회가 꾸준히 유지되는 비결을 물었다. 박연봉 교위는 “수용자 관리 업무로 많은 교도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해소에 국궁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좋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이유”라고 덧붙이며 웃어보였다.

청교정은 3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그 배경에 장명봉 교감이 나름의 이유를 전했다. 청교정이 직원 간의 화합과 조화, 소통의 창구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근무지에서는 아무래도 직급, 나이 등의 문제로 서로 어려워하지만, 청교정에서는 같이 국궁연습도 하고 얘기도 나누며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얘기다.

청교정의 목표는 앞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국궁 대회를 여는 것이다. 박연봉 교위는 청교정이 지금처럼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청교정이 좋은 소식으로 다시 월간 <교정>에 소개되는 날이 머지 않은 듯하다.



Theme Talk

일상에서의 힐링



교도 신재원



교도 전승엽

저는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선정하는 과정과 부식을 선택에 있어서 늘 애로사항이 많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식당 여성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직원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곧 저에게는 힐링이에요.



교도 강명호



교감 이승훈

저는 얼마 전에 딸을 낳았습니다. 어린 딸 아이가 세상 걱정 없이 평온히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가끔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세상 어떤 좋은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에게는 제 딸아이가 힐링입니다.



교도 구본섭



교감 장동수

지금 청송에서 혼자 타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보고 싶었던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힐링 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밥도 먹고 가족과 담소도 나누고 말이죠. 예전엔 몰랐던 일상의 소소함이 지금 가장 큰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힐링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도관이 가족처럼 자ń니다.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누며 웃을 때 힐링이 됩니다. 취미인 악기 연주 역시 저에겐 힐링입니다. 업무에 지칠 때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합니다. 이 힐링의 시간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의 단초를 되짚어 보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면 그 시작은 따뜻하고 다정한 말 덕분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사랑과 갈등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언어의 힘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Language Word

나에 대한 존중과 상대를 향한 배려. 이 두 가지 덕목을 지키는 것만으로 훌륭한 말하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체취는 말 속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말은 힘이 세다. 한 마디 말로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돌려 세우며 인생을 바꿔놓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의 힘을 모르고 살아간다.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또 입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말에 곧 무뎌지고 만다.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들이 난무하는 요즘은, 말이 가진 힘에 대해 다시금 환기해야 하는 시대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다채로운 언어를 청산유수처럼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고 나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다. 말의 본질은 결국 기술이나 포장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스피치 라이터로 활약했던 이기주 작가는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사람의 체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人香)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뿐 어져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이 곧 마음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의 마음을 올곧이 들여다보고 말을 다듬을 줄 알아야 한다.

Speech

존중과 배려를 담은 말하기

나에 대한 존중과 상대를 향한 배려. 이 두 가지 덕목을 지키는 것만으로 훌륭한 말하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나를 존중하는 것은 곧 긍정에서 비롯된다.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행동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이야기를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오롯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인정과 공감하는 표현을 통해 대화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맞다’나 ‘아니다’처럼 단답형을 필요로 하는 질문보다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이상, 가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뜻한 정서를 주는 순우리말을 말의 재료로 삼는다면 자신의 품격이 올라가는 경험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이기주 작가 <말의 품격>



Conversation



교정은 행복을
Happy corrections

음악으로 하나 된 우리 음악으로 얹은 행복

김천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는 만 14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가 생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소년교도소이다. 상대적으로 어린 수형자들이 모여 있는 만큼 많은 가능성과 젖은 불안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곳에서 교도관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터. 교정본부가 행복을 가득 살고 김천소년교도소로 달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김천소년교도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로는 도시락을, 때로는 음악을 살고 교정기관으로 ‘행복’을 배달하러 가는 길은 늘 즐겁다. 강도 높은 업무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잠시나마 일을 잊게 해주고 웃음꽃을 피어나게 할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는 즐거움 때문이다.

오늘 방문한 김천소년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소년교도소다. 나이가 어린 수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열핏 ‘업무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성인들이 모여 있는 교정기관과는 또 다른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교도관들이 매일 매일을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곳이다.

김천소년교도소를 이끄는 전용희 소장은 누구보다 직원들의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장이다. 오늘 교정본부에서 날아온 선물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직원들에게 음악회에 꼭 참석할 것을 신신당부하는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오늘 ‘교정은 행복을 살고’가 김천소년교도소에 바리바리 싸온 선물은 바로 ‘음악’.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이 소리의 예술은,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면서 잠시나마 일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이다.

약속한 오후 4시가 되자 강당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교정공무원들, 여자 직원보다는 남자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위기 속에 슬며시 걱정이 고개를 듦다. 마음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남자 직원들이 오늘 공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황.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윤종웅 교위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교정은 행복을 살고’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격려하고 직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교정본부가 2016년부터 시작한 코너입니다. 이 작지만 뜻깊은 음악회를 통해 모두가 힐링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원들과 함께 참석한 전용희 소장도 잠시 무대에 올랐다. 전 소장은 멀리까지 내려와 준 교정본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활력이 될 소중한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겨 달라”고 독려했다.

오늘 음악회는 특별히 1부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재주꾼이 많기로 소문난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꾸미는 특별공연, 2부는 팝페라 듀오 그룹 ‘페스타’의 무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주 만발, 우리 교도소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

드디어 공연 출발!

모두의 기대로 강당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늘 첫 무대의 영광은 직업훈련과 김준엽 교사가 맡았다. 재능은 없지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교사는 화창한 오늘 날씨에 썩 잘 어울리는 곡을 골랐다며 이문세의 '빛속에서'를 부르겠다고 나서 웃음을 자아냈다. 기타 반주에 맞춰 감미롭게 노래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감상했다. 노래가 끝나고 아낌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고 김준엽 교사는 처음 긴장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사회복귀과 장성일 교우였다. 김준엽 교사와 함께 소내 음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무대에 대해 기대와 긴장을 감추지 못한 그가 첫 번째로 들려준 노래는 '영원히 내게'. 앉아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다가 고음을 질러야 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별떡 일어나 무대 앞으로 나서는 소맨십이 능숙했다. 노래와 노래 사이의 멘트들도 멋졌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지금 현재에 집중하자"는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로 직원들을 응원하고 물러가는 장성일 교우의 모습을 보니 김천소년교도소와 선후배, 동료들을 응원하는 그의 뜨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드디어 1부의 마지막 순서, 소강진 교도가 무대에 올랐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객석 모두가 그만 빵 터지고 말았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멋지게 쓴 채 여느 톱스타 못지않은 위풍당당함을 풍기며 그가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굽고 짧게 인사를 마친 그가 선보인 곡은 '은하수'. 비록 100점짜리 노래 실력은 아닐지라도 분위기에 따른 액션과 멋스러움은 지드래곤이 울고 갈 정도였다. 살짝 불안한 고음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할리우드 스타 같은 액션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노래가 끝나 모두가 열광하는 와중에 "전국노래자랑에 나갔다가 예선 탈락했다며?"라는 객석 누군가의 속삭임이 너무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모두가 또 와르르 콩 자루 터진 듯 웃음을 터트렸다.

음악으로 힐링하다, 행복하다

-

홍겨웠던 동료들의 쇼타임이 끝나고 드디어 오늘의 초대가 수가 나올 순서가 됐다. 오늘 김천소년교도소를 찾은 가수는 바로 팝페라 남녀 혼성 듀오 '페스타(Festa)'. 먼저 눈부신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손지은 씨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인연'을 부르며 등장하자, 모두 숨을 죽이고 노래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손지은 씨가 또 다른 멤버인 김우영 씨를 소개했다. 페스타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공연을 관람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은 평소 접하기 힘든, 아름다운 곡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운을 뗀 후, '넬라판타지아', '지킬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나라' 등 유명한 노래를 연이어 불렀다.

페스타는 때로는 몽환적인 분위기로, 때로는 감각적인 선율로 직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폭발적인 성량과 하모니에 직원들 모두는 크게 환호하며 연이어 박수를 보냈다.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들의 커다란 성원 속에서 페스타는 앙코르곡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주제가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챔피언'을 부름으로써 오늘 공연을 마무리했다. 페스타는 "오늘 객석에서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집중에 감동했다"며 "저희가 도리어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간다"고 진심 어린 인사를 남겼다. 무대는 끝났지만 객석의 교정공무원들은 좀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음악이 주는 순수한 힘에 모두가 감화된 표정들이었다. 흔하고 익숙한 무대가 아니라서 혹시나 즐기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기우는 어느새 저만치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다소 낯선 무대일지라도 흥겹게 즐기는 모습 속에서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들의 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음악이 있다고 한다. 좋은 음악과 더 좋은 음악. 어려워도,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를 감동이라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 바로 이것. 음악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고단한 현실을 잊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오늘 하루, 김천소년교도소에 행복 배달 성공!





김천소년교도소 음악회

mini interview



**'교정은 행복을 싣고'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직업훈련과 교사 김준엽

저는 노래를 잘하다기보다는 노래를 좋아해서 우리 소의 음악동호회 '어울림'에 가입했습니다. 작년 김천소년교도소 종무식을 비롯해 여러 교정행사에서 노래를 불렀지요. 오늘 교정본부에서 주관한 행사의 무대에 이렇게 설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정공무원들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장소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뻤어요. 비록 아마추어지만 저희 노래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 늘 파이팅입니다!



**음악이 가진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사회복귀과 교위 장성일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음악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였어요. 음악이 가진 이야기의 힘을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서 우리 교정공무원들을 위해 노래할 수 있어서 더 기뻤습니다. 기타반주를 해주신 직업훈련과 장순기 선생님과 피아노 반주를 해주신 분류심사과 김민정 교도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랑합니다!



**오로지 교도관만을 위한
시간, 정말 좋았어요.**

보안과 교위 임현숙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교정기관이나 수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어도 교도관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데 아주 특별한 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앞으로 더 자주 열어 주세요

보안과 교위 김민우

음악회는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한 가장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한 이런 자리가 앞으로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MUSIC



**저희가 더 행복했던
무대였습니다**

팝페라 듀오 FESTA

이탈리아어로 축제라는 뜻을 가진 팝페라 듀오 '페스타'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결성해서 지금까지 기업공연, 문화공연, 지역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그룹으로 국내외 유명 뮤지컬곡, 오페라 아리아, 영화 OST 등을 주로 불러왔습니다. 정통 성악도 출신으로 화려한 벨кан토 창법은 저희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오늘 무대는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라는 곳이 일반인들은 쉽게 올 수 없는 공간이고 객석 반응이 무거울까 봐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열정적으로 호응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신나게 무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써주시는 교정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직장 분위기,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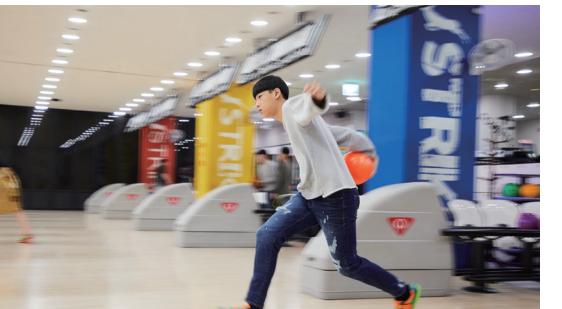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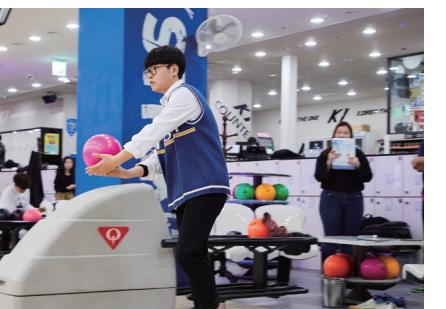
보안과 교도 소강진

우리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공무원들 앞에서 오늘 처음으로 노래해 봤네요. 직원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무대에 서보고 싶어 용기를 내 자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건 처음이라 떨렸지만 또 무척 즐거웠습니다. 음악에는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음악을 통해 우리 모두 힐링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분들, 지금까지 잘해왔듯 앞으로도 더 배려하고 더 화합해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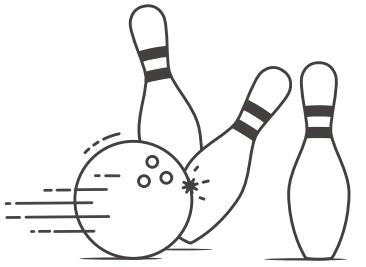


친구 같은 운동이 좋은 삼부자
아빠와의 즐거운 하루

목포교도소 교감 김상율 가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어느 날, 운동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특별한 삼부자를 만났다. 오늘의 주인공은 법무부 최초의 예능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에서 수용자 김 회장으로 활약하며 출연진의 심장을 졸깃하게 만든 김상을 교감과 든든한 두 아들 첫째 김주호(17)군, 둘째 김민규(16)군이다. 한창 사춘기를 겪을 나이에 아버지가 '룰 모델'이라는 속 깊고 힘직한 두 아이와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김상을 교감이 함께한 열정의 하루를 살펴보자.



끝나면 손을 마주 대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격려하였다.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떨렸던 걸까? 연신 긴장한 모습들이 보였다. 하지만 어색한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방 페이스를 찾은 삼부자는 연달은 스트라이크와 확실한 스플레이 처리로 볼링장의 단골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첫 번째 경기에서도, 두 번째 경기에서도 둘째 민규의 독주가 이어졌다. 김상을 교감은 “이 정도 실력이면 교정기관 볼링대회 때 꼭 둘째를 데려가야겠다”라며 웃었다. 볼링이 끝나고 오늘의 MVP를 선정하는 시간, 가족은 만장일치로 둘째 민규를 MVP로 뽑았다. 민규에게 소감을 묻자 “운이 좋았어요”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김상을 교감은 아이들과 운동을 할 때 상금을 걸기도 하는 등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볼링이 끝나고 차로 약 10분 정도 움직인 곳은 첫째 주호의 학교인 동신고등학교였다. “볼링은 둘째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첫째는 농구를 좋아한다”고 김상을 교감이 말 했을 때, 농구 복장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다. 첫째 주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만큼 농구장에서는 주호의 점프슛이 빛을 발했다. 동생 민규와 함께 드리



BOWLING *

볼과 패스를 하기도 하고 골을 넣는 등 주호의 활약이 단연 두드러졌다. 김상율 교감은 “평소에도 주호와 민규가 좋아하는 운동이 달라서 서로 공평하게 두 가지 운동을 함께한다”고 말했다. 배려 깊은 형제의 우애와 삼부자 간의 의리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예민한 사춘기 극복 방법

어려서부터 김상율 교감은 아버지에게 “정신이 맑아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김상율 교감 역시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강조한다. 김상율 교감은 ‘꼭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맑고 건강한 정신’이라며 아이들이 현명하게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교 1학년 주호와 중학교 3학년 민규는 또래 친구들보다 현명하고 건강하게 사춘기를 극복하는 중이다. 첫째 주호는 “아버지의 교육방침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며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MD(Merchandiser)’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율 교감은 “주호 스스로 MD가 되기 위해 옷과 관련된 박람회도 다니고, 책자를 보며 공부도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민규 역시 현명하게 사춘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항상 화낸 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돌이켜 보면 죄책감이 든다”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상율 교감은 “아이들이 이대로 건강하게 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며 “주변에서 두 아이 칭찬을 자주 듣는다. 그럴 때마다 흐뭇하고 더욱 본보기가 되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아버지답게

김상율 교감에게 아이들과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비법을 물었다.

“아이들에게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해도 쭉 아이들과 공을 차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김상율 교감은 ‘롤 모델(닮고 싶은 사람)’로 통한다. 첫째 주호는 “아버지는 평소에 우리 말을 잘 들어준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원도 해주시지만 잘못이 있을 땐 엄격하시다”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둘째 주호 역시 “종종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친구처럼 들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상의를 하여 해결한다”며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내비쳤다.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운동을 한 데다가 인터뷰와 사진 등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하는 세 사람. 함께라서 언제나 즐거운 삼부자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광주 K1 볼링장 문흥점

전라도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볼링장으로 DJ락볼링은 물론 어린이 범퍼 볼링이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하기 좋다. 매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43-2
문의 : 062-573-0925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실 곳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교정 밖에서 만난 특별한 문화사랑 동호회

〈대전교도소〉

교위 홍민호, 교위 임규성, 교위 이지형, 교사 이효진,
교사 서은희, 교사 이경원, 교사 오세진

매일 많은 수용자를 상대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쉬 피로해지기 마련. 그러나 오늘 '어느 멋진 날' 코너에 참여한 대전교도소 동호회 '문화사랑 동호회'는 매우 밝은 모습이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를 과연 대전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오늘 그 비결을 들여다본다.

연극, 영화 등 종합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사랑 동호회

대전교도소는 3,000명 이상의 최다 수용인원을 관리하는 만큼 직원 수도 국내 교도소 중 가장 많다. 대전교도소 소장님께서는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그래서일까? 대전교도소는 소장님을 정점으로 직원들이 뜰뜰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교정 교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2월, 월간 〈교정〉이 방문했던 대전교도소에서 즐거운 사연이 도착했다. 대전교도소의 홍민호 교위가 함께 일하는 고마운 직원들과 함께 연극을 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으로 '어느 멋진 날'의 문을 두드린 것. 홍민호 교위는 작년 교정의 날 기념으로 대전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연극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했다. 함께 연극을 본 사람들은 이 좋은 경험을 연극, 영화 등 문화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었고, 고민 끝에 동호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홍민호 교위가 문화사랑 동호회를 만든다는 소식이 퍼지자 하나둘씩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홍민호 교위를 주축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사랑 동호회'가 결성되었다. 지금은 15명이라는 작은 규모의 인원이지만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 올해는 두 배 이상의 회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왼쪽부터 _ 교위 홍민호, 교사 서은희, 교사 이효진, 교사 오세진, 교위 임규성, 교사 이경원, 교위 이지형



“모임 인원이 늘어나니 단체관람으로
더 알뜰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문화사랑 동호회의 두 번째 행보

월간 <교정>에서는 홍민호 교수가 문화사랑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연극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사랑 동호회의 두 번째 공식 행보다. 홍민호 교수는 공원에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약 20분가량 먼저 나와서 차례로 도착한 회원들을 맞이했다. 직원들이 서로 안부를 묻자 분위기가 금방 약자지껄해졌다. 다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가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공연 시작에 앞서 홍민호 교우에게 문화 동호회의 장점을 물었다. “아직 저희 모임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라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모임 인원이 늘어나니 단체관람으로 더 알뜰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오늘의 이벤트인 연극 ‘트러블 메이트’가 시작되기 전 이효진 교사와 서은희 교사는 교도관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에 “사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매번 돌아가며 순찰 근무를 서야 하니 밤낮없이 일해야 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늘 수용자를 마주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답했다. 연극 ‘트러블 메이트’ 포스터를 보면 “전에는 대학로에서 연극 자주 봤었는데”라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연극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배우들의 재치 있는 대사에 밝은 웃음으로 화답하다 가도 금방 진지하게 집중했다. 연극이 끝나고 홍민호 교우가 소감을 전했다.

“다 같이 공연을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유쾌하고 코믹한 소재로 가볍게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연극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동호회 회원 모두 함께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사랑 동호회답게 연극이 끝난 후 웃으며 감상평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문화사랑 동호회 회원들은 “가벼운 소재의 연극으로 재밌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웃을 수 있었다”, “남자 배우도 잘생기고 여자 배우도 너무 예뻤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만족감을 드리냈다. 홍민호 교우는 앞으로도 문화사랑 동호회는 회원들끼리 자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도관에게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일 터. 대전교도소 문화사랑 동아리 회원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밝은 내일을 맞기를 기원한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교우 홍민호

우리 문화사랑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연극을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화가 아닌 연극을 선택하길 잘했어요. 출연 배우들도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트러블 메이트’ 연극 자체가 가벼운 소재라 다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연극이 끝나고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가 짜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월간 <교정> 덕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향기로 가득한 봄 나들이



에버랜드 툴립축제



아이도, 어른도 좋아하는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올해 가장 먼저 봄꽃 축제를 시작했다.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등 총 110종, 120만 송이의 꽃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 불꽃 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기 간 2018.03.16 ~ 04.29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문의사항 031-320-5000

홈페이지 www.everland.com

사진 스팟 매직 트리, 마르쉐 오 플뢰르, 이솝우산길

고양국제꽃박람회



올해로 12회를 맞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은빛 란, 태극장미 등 희귀 식물 전시, 동화 속 플라워랜드와 같은 화훼 조형 예술로 꾸며지는 실내 정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다. 이외에도 마술쇼, 오페스트라 등 풍성한 공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기 간 2018.04.27 ~ 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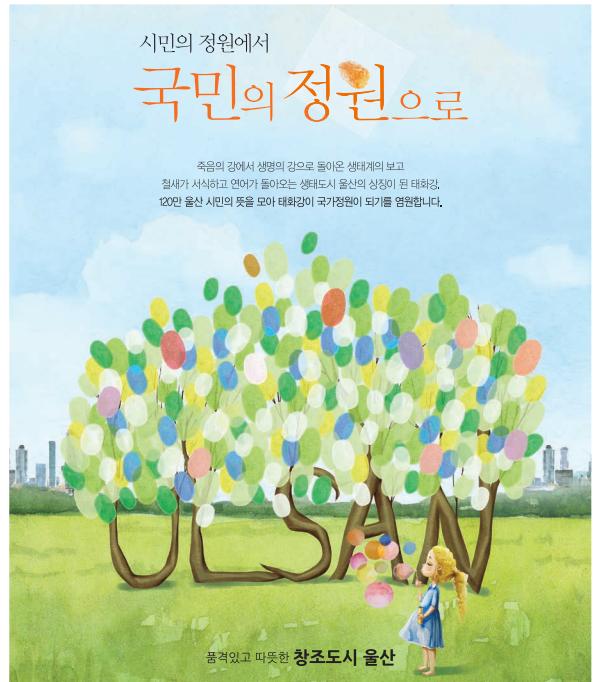
장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문의사항 031-908-7750

홈페이지 www.flower.or.kr

사진 스팟 Fun & Love존

태화강 정원박람회



울산시 중구 태화강 대공원 일대에서 '정원! 태화강에 물들다'를 테마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첼시 플라워쇼 실버메달 3회 수상의 이시하라 카즈유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정원을 설계한 까뜨린 모스박, 햄턴코트 플라워쇼 실버길트 수상의 소피 워커까지 수상경력과 작품이 화려한 3명의 해외 초청 작가와 국내 작가가 정원 20곳, 시민정원, 학생정원 등 총 63곳에서 정원을 조성하여 꽃으로 이뤄진 작품전을 연다. 해외의 작가들을 국내에서 만나 볼 좋은 기회다.

기 간 2018.04.13 ~ 04.21

장 소 울산광역시 중구 내오산로 67 태화강공원 일대

문의사항 052-229-3363

홈페이지 blog.ulsan.go.kr/7834

사진 스팟 63개의 정원

군포철쭉축제



서울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철쭉동산 일대에서 열리는 군포철쭉축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로 조성된 지 20년이 된 철쭉동산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봄에 가보고 싶은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4월이면 어김없이 철쭉 100만 그루가 진분홍 꽃 빛으로 가득 메운다. 올해 2018 군포철쭉축제에서는 거리공연,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와 함께 다비치, 설운도, 경기 남부 경찰 홍보단(김준수, 김형준) 등의 축하공연과 개막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기 간 2018.04.27 ~ 0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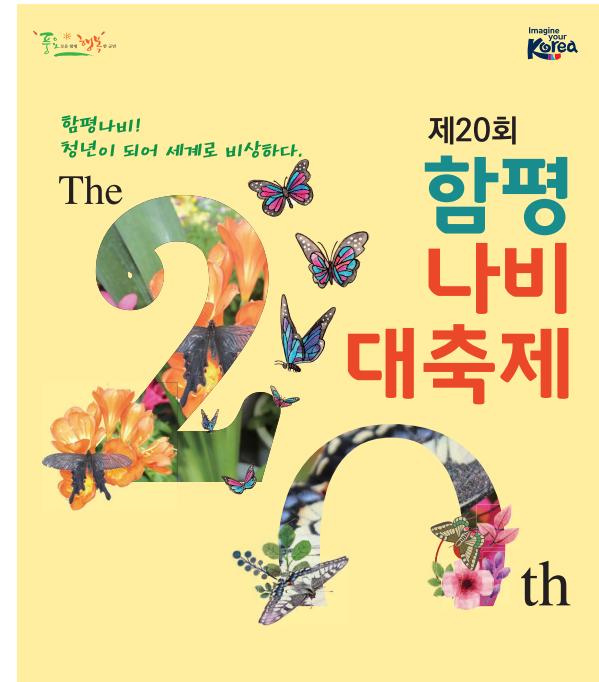
장 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0

문의사항 031-390-3560

홈페이지 www.gunpofestival.org

사진 스팟 철쭉동산, 철쭉공원, 문화예술회관, 시민체육광장

함평 나비대축제



생명이 움트는 봄이면 함평은 화려한 나비의 군무가 시작된다. 멋진 파티복을 차려입은 호랑나비, 하얀 드레스를 두른 배추흰나비 등… 세계축제도시 전남 함평에서 '나비 따라 꽃길 따라 함평으로!'라는 주제로 20회 나비대축제가 열린다. 이번 나비대축제는 나비뿐만 아니라 꽃, 곤충 등 다양한 식물과 생물을 관찰할 기회로 아이들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전시, 경연대회, 무대공연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기 간 2018.04.27 ~ 05.07

장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문의사항 061-320-1784

홈페이지 www.hamyeong.go.kr

사진 스팟 함평엑스포공원 등

봄 사진 잘 찍는법

1. DSLR 촬영 시 기본 노출에서 +1, +2 정도로 맞추고 찍기

노출을 올리면 밝고 아름다운 사진들이 나온다. 가족의 사진은 따스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출값을 조금 올리자.



2. 아웃포커싱을 활용하자

아웃포커싱이란 가까이 있는 피사체는 뚜렷하게, 배경은 흐릿하게 찍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사진 기법을 말한다.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한 후 반 셜터로 초점을 맞춰 촬영하자.

3.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자

사진을 찍을 때 '하나둘 셋' 신호 후 찍는 사람이 많다. 신호는 사람을 경직되게 해 매번 같은 포즈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촬영된다. 가족과 이야기하며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담자.

4. 휴대폰 카메라 필터를 이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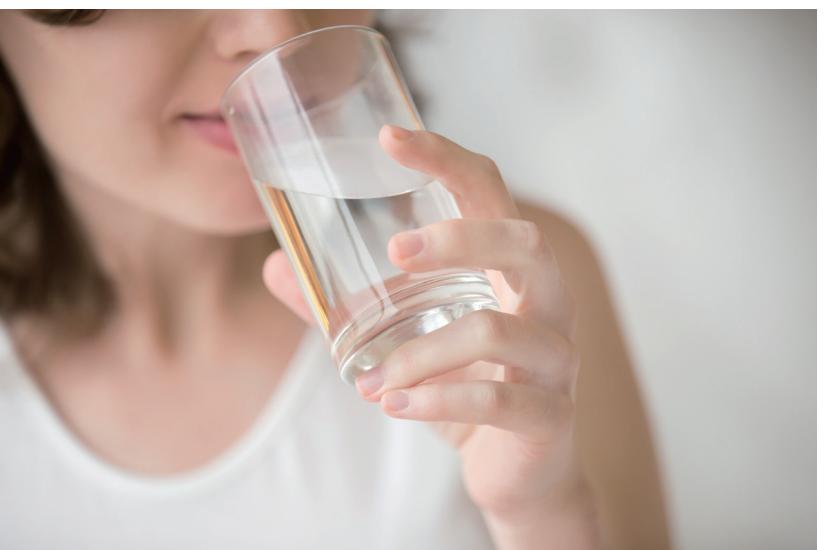
요즘 휴대폰은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톤을 보정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찍으면 같은 사진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다양한 필터를 원하면 사진 앱을 활용하자)

먼지 많은 날, 작게나마 숨 돌리기

숨쉬기가 곤란한 요즘이다. 중국대륙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해에도 또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위력이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3월 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불어 닥친 것으로 기록됐을 정도다. 부연 먼지에 입 꾹 닫을 수 없는 시대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

미세먼지나 황사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선 모두가 익히 알다시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크기가 $10\mu\text{m}$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한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와 기침이 잦아지고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도 쉽게 침투한다.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인, 유아, 임산부나 만성 폐 질환,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난 8월,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는 유럽 9개국 30만 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암 발병률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5\mu\text{g}/\text{m}^3$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고 한다.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정신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 민경복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체내 염증 반응

을 촉진하는 사이토킨 단백질을 활성화해 전신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며 “또한 우울증을 방지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줄여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세심한 노력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하라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처하는 유일한 도구는 마스크다. 다만, ‘어떤’ 마스크를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시중에 팔리는 마스크 중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으로 믿고 쓸 수 있다. 특히 KF80, KF94 또는 KF99와 같은 입자 차단 성능이 표기되어 있는 제품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KF80 마스크는 평균 0.0001cm 크기의 미세한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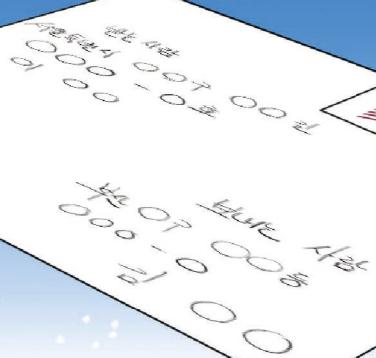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라면 실내에서 자주 분무기를 뿌리도록 한다. 공기 중의 물 분자가 실내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를 바닥으로 가라앉힌다. 그다음, 물걸레를 이용해서 바닥을 청소해주면 남아있던 황사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는 무엇을 섭취해야 할까. 항간에는 삼겹살이 먼지 배출을 돋는다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미세먼지가 식도가 아닌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오는 땃에 삼겹살이 미세먼지 배출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고지방 음식은 오히려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를 돋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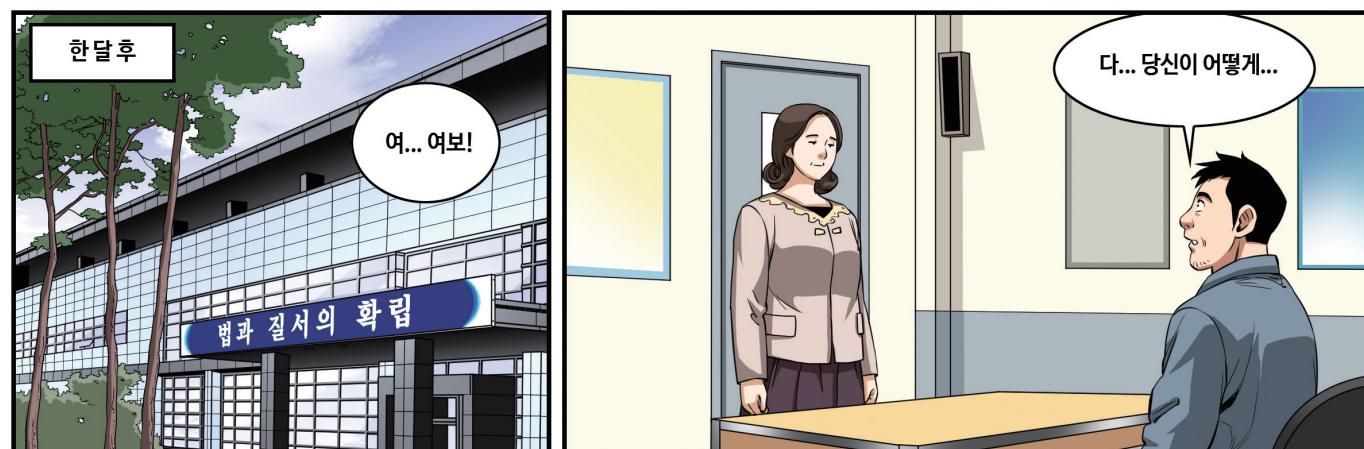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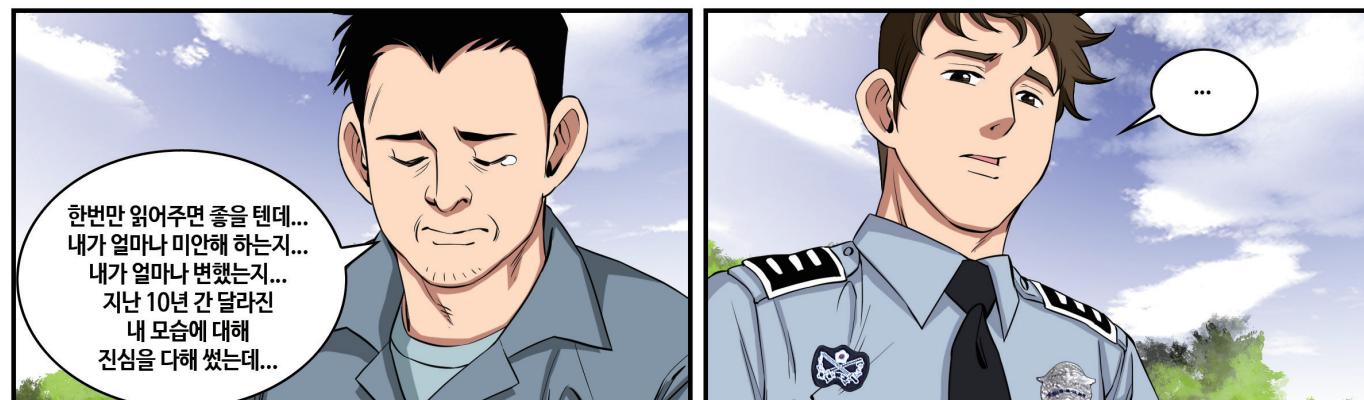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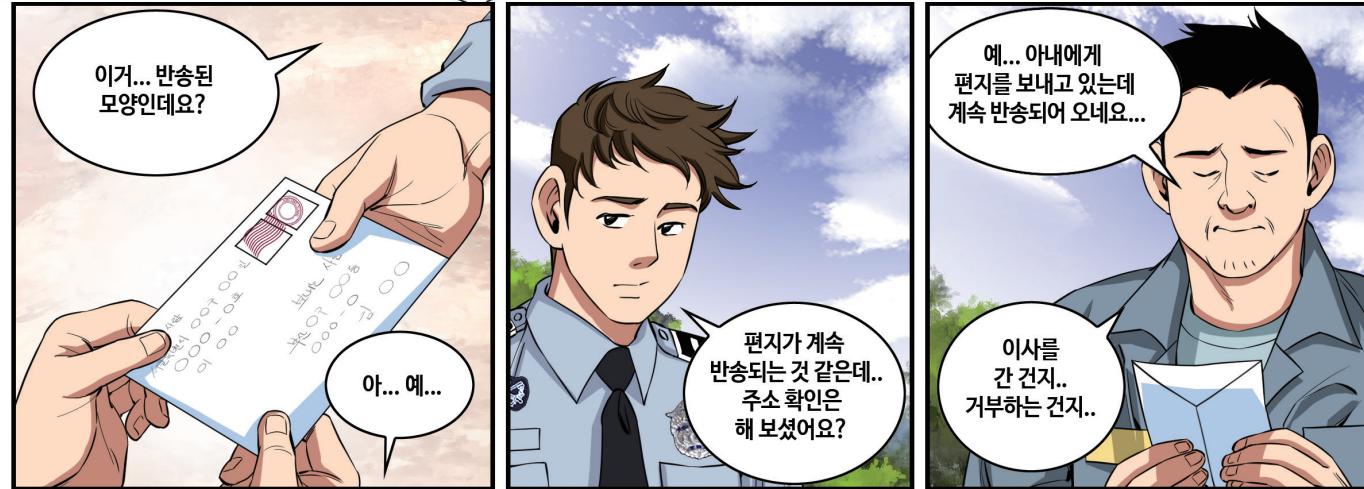
많은 전문가들은 삼겹살보다는 물이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운다. 물이 기관지의 섬모나 폐포를 마르지 않게 해 미세먼지의 배출을 돋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하루 약 1.5ℓ , 8잔 이상의 물을 자주 마셔주면 좋다.

과일과 채소도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우리 몸의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는데,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비타민 C와 B, 엽산 등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단지 12년의 등장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감옥에서의 철학

월간 <교정>은 교정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 교정공무원을 위해 세계 명사들의 강연으로 유명한 TED 강의를 엄선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는 구글의 '사내 철학자'로 불리는 데이먼 호로비츠(Damon Horowitz)의 강연, '감옥에서의 철학'을 추천한다. 많은 수용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감옥에 들어온다. 그들은 자책과 죄절감, 때로는 억울함에 인생을 반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 데이먼 호로비츠와 철학적인 질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인생과 자아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뜬 수용자의 사연이 있다. 암과 진리, 도덕과 성찰의 근원을 물고 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함몰된 자가 한 명의 철학자로 거듭난 것이다.



교도소에서의 철학

데이먼 호로비츠는 산 쿠엔틴(San Quentin) 주립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대학 프로젝트(Prison University Project)를 통해 대학 수준의 철학 수업을 가르친다. 그는 여기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토니'라는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토니가 16세이던 어느 날, 평소 자신의 돈을 뺏던 불량배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주머니에 있던 어머니의 총을 불량배에게 겨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넣으려던 순간 친구의 "괜찮아. 저질러 버리자"라는 말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땅에 불량배가 쓰러져 있고 피가 바닥에 흥건한 상태였다. 결국 그는 중죄모살혐의로 기소됐다.

토니가 갇힌 주립 교도소에 데이먼이 수업을 가면서 들은 처음 만나게 되었다. 데이먼은 첫 수업에서 "우리는 도덕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토니는 "당신이 나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걸 가르칠 건데? 난

내가 틀렸다는 것도 알고, 내가 옳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아. 매일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모든 벽이 내가 틀렸다고 말해준다고. 내가 만약 여기서 나간다고 해도, 내 이름 옆에 항상 딱지가 있겠지. 난 수감자야. 난 '틀렸다'고 이미 딱지가 붙었어. 그래서 당신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뭘 가르쳐 준다는 건데?"라며 불신했다. 데이먼은 그에게 옳고 그름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여기에 배우러 왔어요. 우리의 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철학이죠"라고 답했다. 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니에게 변화가 생겼다. 토니는 "제가 옳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 그게 너무 싫증이 나오. 전 어떤 것이 옳지 못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토니가 겪었던 것은 철학의 목표였다. 토니는 존재적으로 난잡한 것, 인식론적으로 불안한 것, 도덕적으로 의심이 되는 것,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을



Damon Horowitz
TED 강연 영상

배웠다. 이것들은 플라톤, 데카르트, 니체 그리고 빌 클린턴에 대한 것이다. 토니는 "칸트의 정언 명령이 너무나 단호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분쟁들을 다루기 힘들게 만든다"는 기말 리포트를 제출하며 그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인지 질문할 정도로 성장했다. 데이먼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 같이 생각해 보죠"라고 답하며 "이 순간에서만큼은 토니는 꼬리표가 붙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희 둘만 존재했었죠. 교수와 죄수가 아닌 철학을 할 준비가 된 두 지성인이 있던 것입니다"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에게 기립 박수를 받았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과연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가? 비판 철학의 창시자 칸트는 '정언 명령'을 만들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고 보편적인 원칙이 되게끔 행동하라'고 말했다. 또, 옳은 잃은 '~해야 마땅하다'와 같이 무조건적인 의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 없이 행위 자체가 선이므로 무조건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을 '정언 명령'이라고 일컬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처럼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바탕으로 자유의지가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남긴 데카르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이성'이라고 했다. 도덕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였으나, 의견일뿐 정해진 해답은 없다.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한편 산 쿠엔틴 주립 교도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재범률을 떨어뜨려 많은 교도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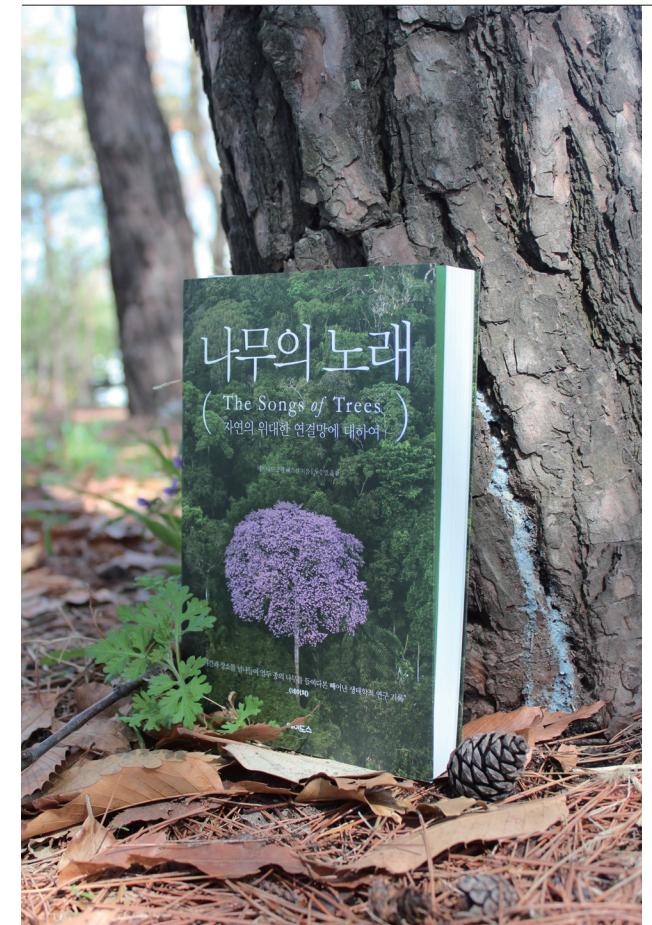
TED 감옥에서의 철학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돌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Damon Horowitz'를 입력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매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숲과 나무, 자연의 에너지를 전하는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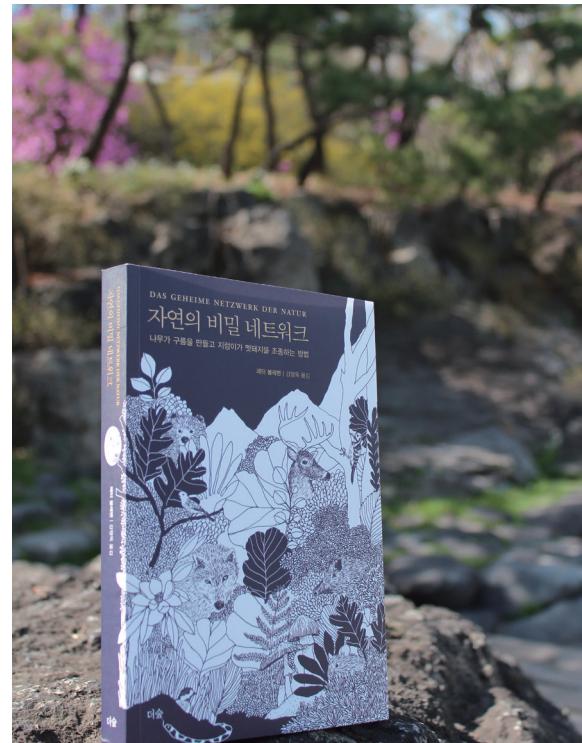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마음에 여유를 잃지 않아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삶. 초록의 기운은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식목일이 있는 4월을 맞아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면 어떨까. 월간 <교정>이 추천하는 책을 통해 미리 자연을 공부한다면 숲속을 산책하며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남다른 지식을 뽐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노래

데이비드 조지 해스킬 지음 / 에이도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해이즐,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코튼 우드, 에콰도르에 사는 케이폭… 페이스북 친구들 이름 같지만, 사실은 나무들의 이름이다. 사람이 고작 100년을 산다고 치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들은 그 자체로 역사다. 커다랗게 드리워진 나무 그늘을 도는 데 무려 스물아홉 걸음이 걸리는 케이폭나무, 춥고 건조한 곳에서도 천 년을 살 수 있다는 소나무나 올리브 나무는 그야말로 대단한 존재다. ‘우리 시대 최상급 자연문학 작가’로 평가받는 저자는 아마존 열대우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지역, 스코틀랜드, 일본 등 전 세계 12종의 나무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비단 나무에 대한 생태적 기록을 넘어 인간과 자연, 역사와 문학, 사회와 예술에 대한 통찰을 담은 이 책은 개인주의로 물든 현대인에게 창조적 생명의 그물망이 전하는 가치와 그 필요성을 설파한다.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피터 볼레벤 지음 / 더숲

‘숲의 은밀한 정복자는?’ ‘청솔모를 보면 겨울의 추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데?’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나무와 풀, 그리고 숲의 생명체들. 별 것 아닌 듯하지만, 자연 속에는 경이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과학 지식을 감정으로 번역해주는 자연 통역가’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피터 볼레벤은 30년 넘게 숲을 관리해온 독일의 숲 전문가다. 이 책은 그의 오랜 경험에 과학적 지식을 더해 자연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탁월하게 풀어간다.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이어져 있으며,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산불 등 인간이 일으킨 재난으로 자연은 물론 인간까지 고통 받는 시대.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보다 더 사회적이고, 더 자발적이며, 더 정교한 자연의 네트워크를 눈여겨볼 이유다.



랩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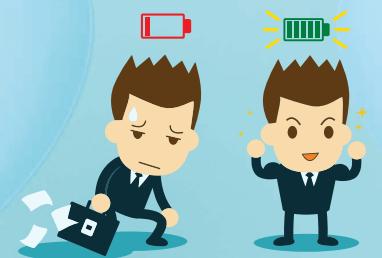
호프 자런 지음 / 신혜우 그림 / 알마

“이제 숲에 가면 잊지 말자. 눈에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라면 땅속에서 언젠가는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기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나무가 100그루 이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랩걸>의 문장 중 하나다. 이 책에는 나무라는 존재의 소중함과 위대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큰 나무 같은 학자로 성장한 저자의 삶과 사랑, 과학을 향한 순수한 의지도 담겨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식물’이라는 주제를 끝없이 연구하는 저자의 인내와 열정은 겨우내 옹크리고 있다가 새로운 계절에 험하게 솟아나는 푸른 생명의 에너지와 닮았다. 삶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는 소신을 갖고 현실의 벽을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을 건넨다.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슬기로운 감정생활



내가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그만큼 많은 명절도 지나갔다. 때로는 야근을, 때로는 주간근무를 하면서 그럭저럭 명절을 보내왔다. 다만 우리 가족은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연휴 기간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처가는 언제 가야 하는지 계산해야만 했다. 운이 좋지 않아 명절 당일 근무라도 하게 되면 나는 웬지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다행히도 지난 설 당일은 쉬게 되어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웠다. 무엇보다 지난 설은 기억에 오래 남을 명절이 되었는데, 다름 아닌 '슬기로운 감빵생활' 덕분이다.

처가 식구들은 유독 드라마를 좋아했다. 집안 모임이 있으면 식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대화를 드라마로 시작해서 드라마로 끝낼 정도다. 지난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 대화의 중심에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있었다.

장모님께서는 막내사위가 교정공무원이었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애청하셨다.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은 내 옆에 둘러앉아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야기와 평소 교도소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셨다. 나는 드라마와 실제의 교정 행정에 대한 차이를 교정 행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덕분에 내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내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장모님을 비롯한 치가식구들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으며 현실과 왜곡된 극 중 내용을 바로잡는 데 애썼다. 그 때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큰조카가 "와, 이모부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이모부 멋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교도관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조카의 한마디는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떠올려진 질문하나, '왜 우리는 멋있어질 수 없을까?' 문득 TV에서 비치는 교정공무원의 모습과 실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매일 거친 수용자와 다퉁아하고, 나와 상관없는 폭언을 들어야 하는 교정공무원은 있는 말, 없는 말을 총동원하며 수용자를 달랠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나의 감정과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감정노동자라는 얘기다. 매일 나의 감정을 수용자들을 위해 소비해야 하고, 그들의 울분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견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멋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다.

알고 보면 우리 교도관도 교도소라는 닫힌 공간을 수용자와 공유하며 생활한다. 어쩌면 우리도 '감빵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드라마 속에서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버티고 생활하듯이 우리도 견뎌 내야만 하는 감빵생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언젠가 감정근육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 근육처럼 감정을 잘 단련할 수 있는 근육이 있다는 것이다. 감정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그렇게 일해서 월급이라도 받겠어?"라는 등의 비난을 받든 "교도관이 그렇지. 맨날 꿈적하지 않고 말이야, 너도 다 똑같아"라는 비난을 받든,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감정근육이 약한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내려간다. 그렇다면 감정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이는 쉽지가 않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감정근육도 단번에 강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든 매일매일 소비된다. 중요한 것은 '소비된 만큼 채울 수 있느냐'다. 소비된 만큼 채우고 비축한다면 삐딱한 감방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는 근무 중에 몹시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었다. 그



날은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다. 어쩌면 감정노동자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소중한 가족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비된 감정을 채우고, 소비할 감정을 비축해야만 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같은 감정의 사람들끼리 있으면 옆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쉽게 융화가 되어 급상승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동호회 모임에 가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으쌰으쌰' 기운을 낸다. 이처럼 감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채워지는 것이다.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를,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하면 된다. 아니면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읽어도 좋다. 무엇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의 감정이 충전되는 것이다.

이번 설은 '슬기로운 감빵생활' 덕분에 아내의 관심도 받고, 처가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어 모처럼 뜻깊은 명절이었다. 앞으로 가족과 영화도 함께 보고 여행도 자주 가며 나와 가족의 감정충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한 시간이기도 했다.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는 형사사법 심포지엄 참석 및 관련 교정기관 자료수집



I.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법무성 심포지엄 참석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범죄 관련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인 수용자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수용자는** 총 2,541명(기결: 1,797명, 미결: 744명)으로 총 수용인원의 **4.6%가량**을 차지함(2017년 말 기준)
- 2018년 1월에 개정한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 방문을 통해 일본 교정기관의 최신 의료처우 및 관련 행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교도소 설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2. 출장기간 및 기관

- 출장 기간 : 2018. 02. 07 ~ 02. 09
- 출장기관 및 면담자 : 법무성 교정국,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 후추형무소

3. 출장 인원

- 총 4명(서기관 서호영, 교정관 박대철, 교감 김동욱, 교도 임지현)

II.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는 형사사법」 심포지엄 참석

1. 심포지엄 개요

- 초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일본 고령 수용자의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수용·의료처우 등 형사사법적 대응방식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일시/장소 : 2018. 02. 09.(금) 13:30~17:00, 법무성 대회의실
- 주요 의제 : 노인수용자의 현황 및 지원, 노인수형자 처우, 노인수용자에 대한 형사정책

2. 기조 강연

- 주제 :『노인수형자의 현황과 지원, Toshiaki Nomura(野村俊明, 일본의과대학 의료심리학교실 교수)』
- 현황 개요
 - 고령 수형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키츠레가와 사회 복귀 촉진 센터에서 지난 65세 이상 남성 수형자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함
 - ※ 2007년 10월에 문을 연 키츠레가와 사회복귀촉진센터는 동일본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민간기업이 협작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계획을 활용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수형자의 특성
 - 본 수형자의 특징으로는 ① 출소 후 거주가 분명치 않은 수형자가 절반에 이르렀으며(45%),
 - ② 입소범죄는 절도(33%), 사기(14%), 강도(8%) 순으로 나타남
 - ③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고혈압(47%), 당뇨병(15%), 심장질환(7%) 순이었으며, 질병이 없는 경우는 32.7%에 불과하였음
 - ④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결과 캇오프 점수인 23점 이하인 수형자가 29%가량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치매 환자로 의심해 볼 수 있음
 - ※ MMSE는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약어로 인지기능의 손상을 밝혀내고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고령 수형자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이 재산범으로 반사회성이 적고, 입소 전에는 취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출소 후에는 직장이나 거주할 곳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다수였음
- 일본 내에서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성분석이나 사회적인 지원 없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형벌이 부과되었는데, 출소 후의 경제활동이나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3. 패널 토론

- 주제 I :『입소 전 단계에서의 노인범죄자 처우』
 -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수형자가 감소하였으나, 노인수형자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교정 기관에서는 의료비의 상승, 인력 부족, 출소자의 주거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재범 가능성은 고려하였을 때, 형 확정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먼저 고려할 방법일 것이나, 국민의 법감정이나 형사사법의 공평성이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함
 - 여기에서는 검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소위 「입구지원정책」이라 함은 각 검찰청에 재범방지와 사회복지지원 검찰사무관을 배치하여 복지·의료 등 관계 기관과 계속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고령 범죄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 시스템임

- 예를 들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노인에 대해서 징역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① 고립되어 있거나, ② 빈곤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복지 및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임
- 따라서, 수사시점에서 피의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복지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교정기관에 입소하지 않고도 고령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음



예수법무성 대회의실 전경



심포지엄 기조강연

■ 주제 Ⅱ :『노인 수형자에 대한 출소 후 지원정책』

- 출소 후 고령 수형자가 복지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정기관 내에서부터 사회복귀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심포지엄에서는 '헬싱키 교도소'의 예를 들고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일반사회와 같은 시설을 반영하여 고령 수형자가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훈련된 노인 수형자는 출소 후에도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주제 Ⅲ :『교정기관 내에서의 노인수용자 처우』

- 일본 법무성은 2018년도부터 전국 8개 주요 교도소에 입소하는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에 대해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음
- 입소 직후 교도관이 먼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간이 검사를 하고, 치매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교정기관에서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초빙된 의사가 진찰하도록 함
- 본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노인성 치매에 대해 교도관,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치우를 할 수 있고, 치매 환자를 가려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노인 수용자에게 ① 신체와 머리를 쓰는 작업을 하도록 기회를 줄 것, ② 독거실에서의 시간을 줄일 것, ③ 생활 능력을 향상하는 활동을 시킬 것(예: 요리, 청소, 금전관리 등), ④ 질병 예방 교육을 시킬 것 등을 권고하고 있음

4. 일본 교정국 방문

- 심포지엄 참석 이전에 일본 교정국장인 Tomiyama Satoshi(釜山聰)를 예방(2.9, 13:00)하여 양 국가 간 협조 및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교정국 사무실에서 동일본 성인교정 의료센터 개소에 대한 추진경과와 관련한 회의(02. 09, 13:15)를 가졌음



일본 교정국 방문

III.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 방문

1. 시설 개괄

- 주소는 '도쿄 아키시마시 모쿠세이노모리, 2초메-1-9'이며, 舊 '하치오지 의료형무소'에서 2018년 1월 16일 명칭을 바꿔 「국제 법무 종합 센터」내의 일부 기관으로써 새롭게 개원하였으며, 기존 '하치오지 의료형무소'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음
- 교정 시설과 법무부 관련 연수 시설을 집약화한 대규모 「국제 법무 종합 센터」가 현재 신설 중이며, 「동 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는 「국제 법무 종합 센터」의 일부로 편입될 예정임
- 「국제 법무 종합 센터」부지 면적은 약 12만 5,000m²며, 도쿄돔 10배 규모에 해당함
- 「국제 법무 종합 센터」로 이전이 예정된 연수 시설은 총 8개로 교정연수소, 공안 조사청 연수소, 관동 의료 소년원, 카나가와 의료 소년원, 하치오지 소년 감별소,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 등이 위치할 예정임
- 「국제 법무 종합 센터」는 법무부 담당 복합 시설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 운영의 합리화 · 효율화 및 지역과의 공생을 도모하면서, 법무 행정을 한층 더 충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기관 현황

-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정신과, 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구강 외과, 뇌신경 외과, 호스피스 등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근무자는 총 359명으로, 그중 240명이 정복 직원, 의사 17명, 간호사 90명,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으로 의료 관련 인원만 총 119명 수준이며, 야간에는 의사 1명 등 총 23명이 근무함
- 수용 정원은 580명으로 현재 160명의 수용자가 있으며, 뇌수술과 심장 수술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을 갖춤

3. 시설 특징

■ 조무사 취득과정

- 센터 내에는 도쿄시에서 주관하는 조무사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복 교도관이 본 과정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4월에 입학하며 기본교육, 외부 실습 등 총 2년간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시설은 일반 간호학교와 같이 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산부인과 실습실에서는 실제

아기와 같은 무게의 인형을 사용하는 등 의료시설 및 수업 도구를 외부 조무사 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일본 교정시설 최대규모 인공투석실

- 혈액투석실은 총 30대의 투석기를 갖추고 있으며, 60명의 수용자가 A, B조로 나누어 투석할 수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외부의 투석전문가가 파견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음
- 과거 하치오지 의료센터에서 보유한 투석기(5개)에 비교해 투석기의 수자는 6배가량 대폭 늘었으나, 구매가 아닌 위탁형태로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은 없다고 함



최신식 혈액 투석 장비



■ 일반 병원과 같은 의료법 규정 적용

- 거실은 훨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양문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인실이 6.4m², 복도는 1.8m의 폭으로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시설 내에는 MRI, 평형 검사, 초음파, 내시경, 64 단층촬영이 가능한 CT기, 수술과 조직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위/아래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 단백질, 혈당, 혈액, HIV, C형간염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조직검사실이 있음

IV. 후추형무소 참관

1. 시설 개괄

- 후추형무소는 일본 최대 규모의 형무소로, 1790년에 개소하여 1953년 6월에 동경부 후추시로 이전하였으며, 1986년 9월부터 전면 개축공사에 착수하여 1999년 3월 신청사로 준공함
- 부지의 면적은 26만 2,055m², 직원 615명, 수용정원은 2,668명으로 약 2,000명가량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범죄성향이 높은 남자수형자와 외국인 남자수형자가 대상자가 됨



후추형무소 방문

2. 기관 현황

- 조직은 소장 아래에 6개의 부서를 두고 있는데 총무부, 처우부, 교육부, 의무부, 분류심의실, 국제 대책실 등임. 국제대책실에서는 외국인 수형자를 전담 관리하고 있는데, 국제전문가와 통역·번역인이 배치되어 외국인 수형자 생활, 작업, 지도, 상담 등을 맡고 있음
- 수용자는 범죄 경향이 농후한 남자수형자 즉, B지표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데 재복역을 반복하며, 알코올에 의존하고 방랑벽이 있으며, 개선이 어려운 수형자를 뜻함.

3. 의료 및 심리치료의 특징

- 의료인력은 외과 의사 2명 내과 의사 1명, 정신과 의사 2명, 치과 의사 1명, 외부의료인력 15명, 간호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소 시 건강진단을 하며, 정기적인 진단 및 간호직원의 순회 등에 의한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나 수형자의 호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거쳐 검사, 투약, 휴양, 처우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치료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의에 의한 왕진, 외부병원에의 통원 및 입원, 의료형무소로의 이송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고령 수형자 대책은 감염증 예방, 좌식 작업장, 원예작업장 등임
-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희망에 따라 외부의사에 의한 진찰을 자기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심리치료로는 약물 의존 이탈 치료, 폭력단 이탈 치료,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관점전환 교육, 성범죄 재범 방지 치료, 취업 지원 지도, 알코올 중독 치료, 말더듬증 교정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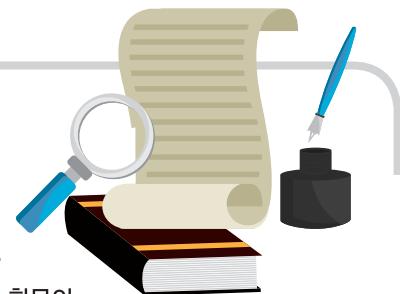
V. 시사점 및 특이사항

-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형사사법 개혁은
 - 중범죄 고령 수형자에 대해서만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
 - 교정공무원에 대한 치매 환자 교육을 시행하여 시설 내에서 조기에 치매 환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우를 시행
 -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령 범죄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입소한 수용자에 대해 사회적응 교육을 수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의 경우 종합병원에 준하는 시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설 내 의료기 구의 경우 의료법인에서 위탁형태로 차입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법인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혈액 투석기, MRI, CT기 등을 운영함에 있어 이전에는 외부병원에 진료 및 입원해야 하므로 과도한 의료비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지만, 내부 차입형태로 인해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를 보이므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사에 대한 공무원 채용기준을 개정하여 외부병원에서 활동하면서 교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외부의 진료기술을 교정시설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수급이 원활해졌다고 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채용을 적극 고려할 만함

교정학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구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1. 현행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⑦ 소장은 3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신상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귀휴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법부무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⑩ 일반귀휴는 1년 중 10일 이내로 한다.
- ⑪ 특별귀휴는 경비처우급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⑫ 귀휴자는 기간 내 미복귀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ㄴ, ㅁ, ㅂ

④ ㄴ, ㄷ, ㄹ

⑦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귀휴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일반귀휴는 1년 중 20일 이내로 한다.

⑩ 귀휴자는 기간 내 미복귀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②

2. 수용자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①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민·형사소송,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이 있다.
- ② 권리구제 수단으로 가장 확실하게 인식되는 것은 소송을 통한 구제이다.
- ③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은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수형자의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처리될 수 있다.
-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⑥ 현행법상 소장면담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할 수 있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은 청원과 동일하게 본인만이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⑦ 행정심판은 비사법적 구제수단이다.

⑧ 현행법상 소장면담은 처우에 관하여 할 수 있다.

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은 본인과 제3자도 가능하다.

정답 ③

3. 금차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자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제112조 제4항 (징벌의 집행)

소장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답 ②

4. 현행법령상 수형자에 대한 처우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게도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자치활동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월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④ 소장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과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과 같은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고, 일반경비처우급은 대상이 아니다. 외부통근 작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이다.
- ② 자치생활 대상 수형자들은 교회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매월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④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APRIL 2018 Vol. 503

교정기관 공중보건의사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30일 안양교도소 회의실에서 교정기관 공중보건의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 의료과장 등 4명과 소속 공중보건의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의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기타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신설 교정제복(교육훈련복) 지급 및 착용시행

지난 3월 2일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의 무도훈련과 교육훈련용 복장 지급을 추진해 법무연수원 9급 신규교육생 180명 및 교육운영진 40여 명을 대상으로 춘추용 상하의 및 여름 하의를 지급했다.

주요인사 교정기관 방문자료 D/B 구축

지난 3월 9일 교정본부는 장관급 이상 주요인사의 교정기관 방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사후, 기록물로 활용하기 위한 D/B를 구축했다. 2017년 12월까지 소속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2018년 2월 자료 취합과 편집을 완료하였으며 3월 D/B를 구축했다. D/B는 PDF파일 형식으로 소속기관에 배부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교정공무원 근무복 개선 연구용역 관련 시제품 발표회

지난 3월 20일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의 근무복 개선 연구용역과 관련한 시제품 발표회가 있었다. 김학성 교정본부장, 외부평가위원, 소속 직원 등 45명이 모여 시제품을 관람하고 흥익대학교 연구진의 설명을 듣는 등 품평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 전국 직업훈련과장 워크숍

지난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충북 청주의 밸류 호텔 세종시티에서 2018년도 전국 직업훈련과장 워크숍이 치러졌다. 참석 인원은 전국 직업훈련과장과 포함하여 총 51명으로 2018년도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과 교도작업·직업훈련의 취·창업 연계 강화 방안 등 4개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교정시설 도서관 정비 기본계획 시달

지난 2월 28일 교정본부는 전국교정시설 도서관 정비 기본계획을 시달했다. 수용자 맞춤형 도서 확대와 전문적 도서관 관리자 양성, 인권 친화적 독서문화 공간 조성 등을 화두로 2018년 예산협의를 거쳐 2019년 슬라이딩 책장,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정본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용자 독서활동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수용생활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수용자 상담 강화를 위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업무교류 2차 회의

지난 3월 22일 서강대 심리학과 회의실에서 수용자 상담 강화를 위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업무교류 2차 회의가 열렸다. 심리치료과 사무관 김병천 등 3명과 한국상담심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연구진 등 3명이 모인 가운데 교정기관 우수 외부 상담전문가 인력풀 제공 진척사항을 논의하고, 2018년 7월 중 수용자 상담사례회의에 학회 슈퍼바이저 파견, 법무연수원 심리치료 전문상담인력 양성과정의 커리큘럼 구성 및 교수 지원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2018학년도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입학식 개최

지난 3월 6일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 & 외식조리과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총장 및 관계자, 수험자 가족 등 1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 25명의 수용자가 입학을 마쳤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서지선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3월 21일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형석

여성수용동 통용문 및 주벽 벽화작업

서울구치소는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2주간 민명숙 직가 및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지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여성수용동 통용문 및 주벽에 벽화를 제작하였다. 윤재홍 서울구치소장은 "기존 정형화된 수용자 교회방식에서 벗어나 미술치료와 같이 수용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심리적·정서적 전문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진교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법사랑위원 화성지구협의회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3월 20일 법사랑위원 화성지구협의회 위원 1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지도하는 법사랑위원에게 따뜻하고 보람된 교도관의 참모습을 알리고 체계적인 교정행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됐으며, 구내 수용동과 작업장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문화의 날 행사(신춘 음악회) 실시

수원구치소는 2월 28일 수원시 소재 SK 아트리움에서 직원 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문화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영화감상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행사로 직원들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교향곡 '운명' 등 8곡의 연주 등을 들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안양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수용자 운동장 고정형 운동기구 설치

서울동부구치소는 3월 23일 수용자 운동장에 고정형 운동기구를 설치하였다. 고정형 자전거 등 운동기구 7대를 수용자 운동장에 설치하여 수용자 처우의 질을 향상하였으며, 이 운동기구는 서울변호사협회의 수용자 교화 및 처우향상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법조계와 교정기관의 활발한 교류의 결과임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천구치소 / 교사 강호철

인천지역 유관기관장 참관

인천구치소는 2월 8일 인천지역 유관기관장 16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정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인천구치소의 일반현황과 교정행정 전반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인천구치소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김진남

2018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3월 20일 구로구 고척동 실크로드에서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교화사업 실적보고와 감사 및 결산보고, 기타 교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토론하고, 2018년 교화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사랑의 현혈 행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19일 교도소 내 연무관 앞 현혈버스에서 '2018년 사랑의 생명 나눔 현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현혈 행사는 학생들의 겨울방학과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독감환자가 급증한



인천구치소

데다가 설 명절에 올림픽까지 겹치면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정의석

가족과 함께하는 보라미 주말농장 운영

의정부교도소는 3월 14일 직원 및 가족들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보라미 농장' 경작지를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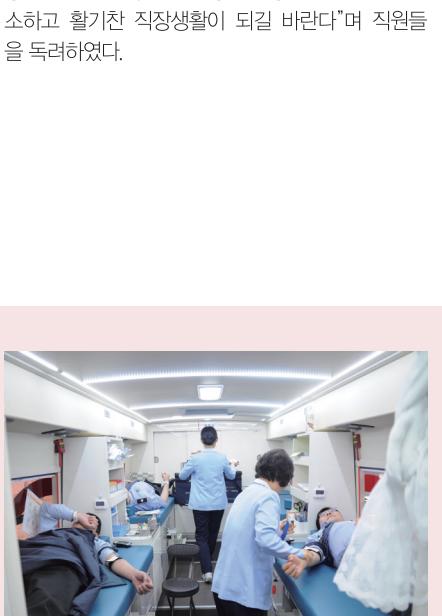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여주교도소는 2월 28일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자살·자해·폭력·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처우가 곤란한 정신질환 수용자들에게 전문의 상담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명수환

정월대보름맞이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3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참여한 직원들은 족구 경기 및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여러 민속놀이를 함께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길현 소장은 "많은 직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독려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춘천교도소는 3월 9일 수형자 취업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형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호

여자수용자 무료 미용 봉사

원주교도소는 2월 27일 (사)대한미용사회 원주시지부와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원주교도소 여자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실시하였다. 미용 전문가들의 재능 나눔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 여성수용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원주교도소는 여성수용

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미용 봉사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교도소 / 교감 김이수

사랑의 봉어빵 나눔 행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지난 2월 27일 교정협의회와 오병이어 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맛있는 봉어빵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하에, 매년 겨울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오병이어 봉사단원 10여 명이 참여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동절기 자체소방훈련 실시

영월교도소는 2월 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 예방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긴급 화재상

황 연출 및 전파를 실시한 이날 훈련은 사무실 및 현장 직원들의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른 수용자들의 빠르고 안전한 대피 및 화재지점 초기 진압 등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따라 순조롭게 이뤄졌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3월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을 초빙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사례,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운동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전 직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별 성희롱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주 내용으로는 남녀평등의식 고양과 성희롱예방 및 피해 시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멘티·멘토를 활용해 피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티그마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창원교도소에서는 향후 멘토링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 교사 강민승

직원 가족을 위한 희망 나눔

부산교도소는 2월 26일 투병중인 직원 가족을 위해, 전 직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직원가족돕기 성금 1,266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직원들이 심사일반 모금한 것으로, 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동료와 그의 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고 하루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사랑의 현혈 운동

포항교도소는 2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협조해 '사랑의 현혈운동'을 펼쳤다. 이번 현혈은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생명나눔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상수

부정청탁금지법 직원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3월 5일 '3월 월례회' 개최 후 전 직원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PPT를 활용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의의, 주요 개정내용, 위반 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의 내용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참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캠프 개최

대구교도소는 2월 27일 '우리가족 도란도란 행복을 타리'를 주제로 수형자 3명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하였다. '가족사랑캠프'는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주최하고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진행으로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T-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소원해진 가족 간의 관계회복을 돋고 유대를 강화하여 수용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여성 직렬별 대표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실시

창원교도소는 3월 9일 미투 운동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직렬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2018년 1차 마음치유 프로그램 시행**

진주교도소는 정신질환 수형자 5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차(제27기) 마음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마음치유프로그램은 1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13주간 진행되며, 내부강사 2명과 외부강사 4명이 약물증상교육, 사회기술훈련, 치유영상 등 10개 과정을 교육한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명재](#)**수형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실시**

대구구치소는 봄을 맞이하여 수형자가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수형자 가족을 대구구치소 대강당으로 초청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수형자 및 참가가족들이 힘든 현실을 서로 위로하고 애틋한 가족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희롱 설문조사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는 만큼 직장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를 간 전 직원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희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도 양승명](#)**풍산초등학교 재학생 장학증서 수여**

안동교도소는 3월 5일 자매결연 학교인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을 안동교도소로 초대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증서 수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진행하고 있는 안동교



부산구치소

도소의 정학사업 일환으로, 증서 수여와 더불어 향후 1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3D프린팅 전문교육 수료식**

김천소년교도소는 2월 28일 소내 인성교육장에서 ㈔3D프린팅 산업협회 수석부회장, 경문대학교 교수 등 3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수형자 3D프린팅 전문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3D프린팅 전문교육은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소년수형자의 능력 개발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법무부 법사랑 김천·구미 지역연합회와 ㈔3D프린팅 산업협회의 후원 하에 융집직종 직업훈련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유성](#)**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참관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20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9명을 초대하여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지난 2014년 자생식물 증식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마다 자생식물 합동배부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차석호](#)**울산지방검찰청****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참관**

3월 20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은 울산지역의 유일한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를 참관하였다. 이번 참관을 통해 드라마 등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교정시설의 업무처리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해 서로의 업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동교도소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명예로운 퇴임식 개최**

경주교도소는 2월 28일, 34년간 교정현장에서 교정 교육 업무에 헌신하신 김정훈 교정관의 명예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많은 직원들은 자리에 참석하여 교정 현장을 떠나는 선배의 모습에 박수로 찬사를 보내며 제2의 인생을 응원했다.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교정협의회 정기 총회 개최**

통영구치소는 3월 6일 용남면 웨딩스토리 연회장에서 교정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전년도 사업 결산 보고 및 2018년도 사업 계획 예산 심의 및 임원 선출이 있었으며, 2부 이취임식에서는 신임 최상현 회장이 교정위원들을 대표하여 손목선 전임회장 및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밀양구치소는 2월 26일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보라미 봉사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3월 14일 상주시 사벌면에 위치한 희망재활원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보라미 봉사활동에 참가한 수형자는 4월 가석방 신청자 및 형기 종료 예정자로 재활원 주변 환경미화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상주교도소

NEWS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형석](#)**상반기 기록·정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대전지방교정청은 2월 23일 대전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소속기관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현안 및 문제점과 우수 및 미흡 사례의 공유를 통해 담당자 간 소통역량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교도소 / 교위 하봉문](#)**강사초빙 성희룡·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대전교도소는 2월 19일 김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성희룡·성폭력의 개념, 사례, 예방 방법 등을 숙지했다. 직원들은 앞으로 배려와 존중의 평등문화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성희룡·성폭력 예방과 상호 신뢰와 존중의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청주교도소는 2월 26일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 41명과 수용자 가족 114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수용자 가족들은 교정시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실히 수용생활을 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수용자를 보고, 출소 후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희망에 찬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충주구치소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수형자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 후 가족의 구내침관 순으로 진행된 이날의 행사는 수형자에게는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에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수형자 34명과 가족 97명이 참석하였다.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 교사 이희성](#)**동호회 운영진 간담회**

천안교도소는 2월 27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운영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동호회 운영, 행복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직원단합대회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3월 5일 정월대보름 맞이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 단합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전통놀이를 즐기고 다트게임 등 다양한 오락경기를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종우](#)**한국영상대 경찰행정학과 참관 실시**

공주교도소는 3월 27일 한국영상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참관을 시행하였다. 이번 참관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법집행 절차 및 교정행정에 관하여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5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모범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만남의 날을 주선해 참가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용자와 가족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그간 전하지 못했던 그리운 마음을 나누었다.



천안개방교도소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외부강사초빙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홍성교도소는 3월 21일 직원교육실에서 종교의 종립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배제대학교 종교학과 안신 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했으며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인 만큼 타종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어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5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모범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만남의 날을 주선해 참가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용자와 가족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그간 전하지 못했던 그리운 마음을 나누었다.



천안개방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최규철

광주지방교정청 산하기관 거실지정 담당자 회의

광주지방교정청은 3월 5일 산하기관 거실지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효율적인 거실변경 계획 방안을 발표하였고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공유의 장이 마련되어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광주교도소 / 교사 김명규

현혈의 날 행사

광주교도소는 2월 26일 현재의 혈액 부족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협조 하에 사랑의 현혈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현혈을 통해 혈액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웃을 위한 생명 나눔 활동을 실천하였고 자신의 건강 상태 또한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전주교도소 / 교사 김용희

제1회 출소예정 수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전주교도소는 3월 19일 출소예정 수형자의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수형자들에게 취업면접의장을 마련하여 취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 유망기업 10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참여 수형자 전원이 사복차림으로 취업면접에 참가해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구직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교사 방상용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장 입학식 실시

순천교도소는 3월 6일 2018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장 제1회 커피바리스타 & 외식조리과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화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25명의 신입생과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식사 및 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입학식이 끝난 후 신입생과 가족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으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돋ون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교도소 / 교사 이정균

직원 한미당 체육행사 실시

목포교도소는 3월 5일을 기점으로, 직원단합과 소통을 위한 한미당 체육행사를 시작했다. 행사는 이날 축구대회 예선전을 시작으로 총 8개 팀이 참가하여 5월 4일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제9585부대 군산1대대 장병 40명 군산교도소 참관

2월 28일 제9585부대 군산1대대 장병 40명이 군산교도소를 참관하였다. 이날 참관은 군 장병들에게 직접 교정 현장을 참관하며 교정정책 및 행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했으며, 제1대대 장병들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도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정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종양통제실, 신입실, 자치수용동, 제1심리치료센터 등 군산교도소의 주요시설을 연이어 참관하였다.



전주교도소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근절 결의대회 개최

해남교도소는 3월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윤리를 준수하여 청렴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욱

편견의 변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읍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 경기인 보치아 경기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해보며, 간접적으로나마 장애의 불편함이 아닌 조금 다른 느낌을 느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해남교도소

NEWS

교정공제회

제6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교정공제회는 3월 23일 3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를 하였다. 여기에 교정공제회 대의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다양한 직급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정관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군교도소

자생·멸종위기 식물 파종행사 계획

국군교도소는 3월 30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6명이 국가 생물자원의 보존과 활용, 수용자의 심성순회를 위해 '자생·멸종위기 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의 일환으로 산꼬리풀 등 6종 1만 7,500개체의 파종행사를 실시했다. 또 '재미있는 봄꽃식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기간 장병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초청 강연을 실시하였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대구

의정부교도소
교위 김석정



서울

수용자 심성순화에 앞장서

사회복귀과 재직 시 종교(천주교) 담당 업무를 하며 수용자 자매결연 및 상담 등을 통해 심성순화에 노력하여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였으며,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하였다.

부산구치소
교사 조주현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조사를 위해 공범인 불구속 피고인과 수용자에 대해 입회 계호 중 수용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수상히 여겨, 교도관들에게 세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계하였고, 정밀 신체검사 결과 담배 2개비를 러닝셔츠 밀단에 은닉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
교위 신상호



대전

수용기록업무와 행정제도 개선 및 직무능력 향상

각종 민·형사 관련 소송서류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 처리로 재판 및 형집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수용기록업무를 철저히 하고 교정장비 사용법 교안 작성 및 직장교육, 사격훈련 시행 등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힘썼다.

광주교도소
교사 장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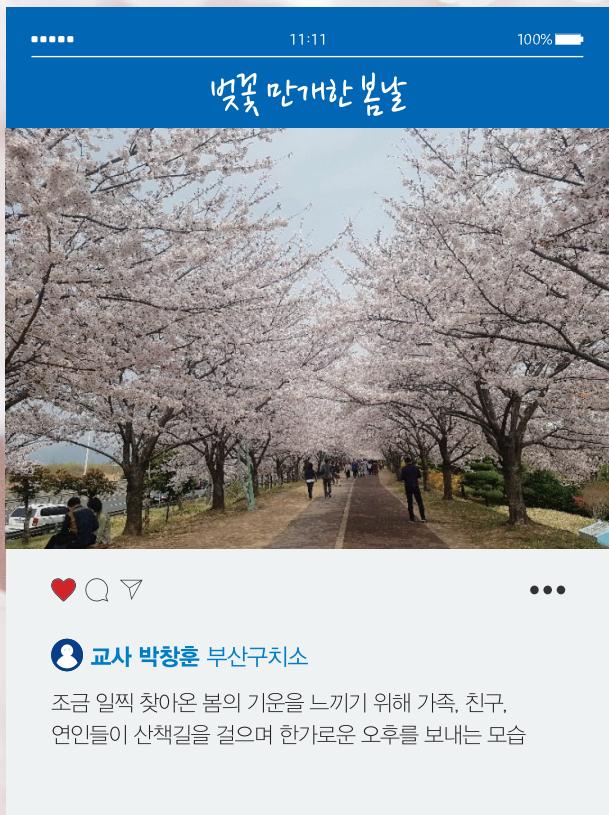
광주

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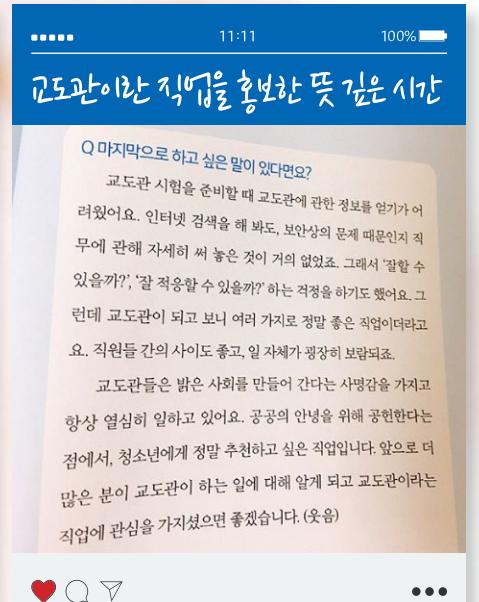
보안3부 화장지(부) 담당자로, 수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상담과 고충해소를 통해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작업지도로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교도작업 제품 품질 향상에 앞장서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였다.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4월호 교정인스타그램에서는 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상에서 '힐링'의 에너지를 체험하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간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힐링을 함께 공유해 보세요.



교도 나승훈 경북북부제3교도소
퇴근 후 관사에서 동료들과 조촐한 생일파티,
이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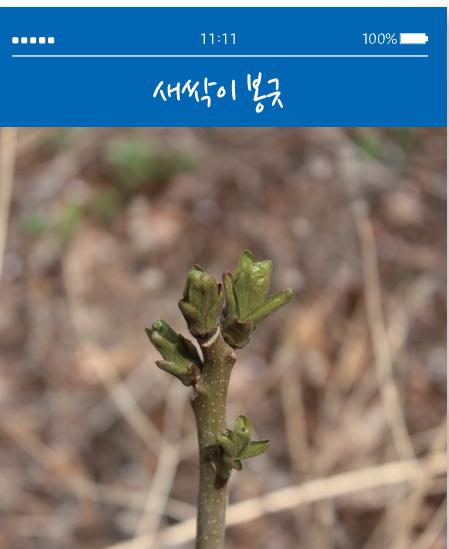
교사 오전석 전주교도소
일상의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저 하늘 높이
비상하는 시간



교우 정성희 대구교도소
어릴 적부터 촘을 좋아해 고전춤과 현대춤을 망라한 나. 새순 둋는 어느 봄날 어르신들과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에서 얼쑤~



교도 이유성 경북북부제3교도소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미니스포츠타임을 가진 꿀맛 같은 시간



교도 곽명재 대구구치소
점심시간에 산책하던 중 새싹 발견. 쉴 새 없는 업무 속에서 새싹을 보며 생명의 강인함을 느낀 시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2018.1.25 ~ 5.15



#불과몇시간전 #추억의장소
#캠핑 #글램핑 #산불조심



산불예방은 내일을 위한 모두의 약속입니다!

산불신고 : 시·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



월간



독자 참여 마당에
응모하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1

교정 글마당



소설, 시, 수필은 물론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달의 작품으로 선정되어 교정 글마당에 소개된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코너 2

교정 인스타그램



'교정 인스타그램'에 다음 호 주제와 관련된 사진
을 찍어서 짧은 글과 함께 아래의 교정 메일로 보
내주세요.

교정 인스타그램 코너에 소개된 분들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다음 호 주제는 '교정 인스타그램'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1. 참여하고 싶은 글이나 사진(원본)을 준비한다.
2. 소속, 직급,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correct2015@naver.com으로 보낸다.
3.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다.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79호) 원고 모집

한국교정학회 학술지 교정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교정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논문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가능
- 모집기간** 2018. 4. 2.(월) ~ 2018. 6. 3.(일)
- 발간일자** 2018. 6. 30.(토)
- 제출방법** 학회 공식 이메일로 원고 송부(krscs2000@hanmail.net)

접수
방법



※ 논문투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정학회 홈페이지(krsc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